

은행+증권+보험 묶어 한곳서 다양한 서비스

# 금융시장 '복합 점포' 뜬다

흥국·미래에셋·하나금융 등  
광주·전남에 잇따라 개설



은행과 증권, 보험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 복합점포가 광주·전남지역에도 속속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광주 '흥국금융플라자'를 찾는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영업점이 은행·증권·보험업무를 한데 묶은 '복합점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복합점포는 금융권들이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한 곳에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일선 영업점에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한 복합점포가 올해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

복합점포는 은행과 증권 또는 보험과 증권사의 점포를 결합한 것으로 한 곳에서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그룹이 복합점포를 주도하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 등 양쪽 거래실적을 합산해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흥국생명, 흥국상용화재, 흥국투자신포 등 6개 금융계열사를 둔 흥국금융그룹은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흥국생명빌딩에 '흥국금융플라자'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흥국금융플라자는 전문 상담원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고객에게 맞는 최적 상품 안내, 대출상담 등 보험·투자·신탁·증

권·저축은행 등을 한데 모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해 2월과 12월 광주에 2곳의 '미래에셋금융플라자'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순천에 1개 점포를 열었다.

미래에셋금융플라자는 보험가입 및 환급 등 보험업무외에 그룹 관계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개발한 펀드판매를 맡고 있다. 또 예금과 적금수신 등 은행 신탁업무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도 은행·증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금융플라자'를 목포 하당지구에서 한군데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 복합점포는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대한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합한 형태로 은행과 증권 거래실적

을 합산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신용대출 시 근거로 삼고 있다.

신한은행은 은행지점내에 국토농신한증권 창구를 개설한 일명 BIB(Branch in Branch) 방식의 복합점포를 광주 상무지구에서 운영하면서 은행계좌를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박종모 국토농신한증권 상무영업소장은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은행과 증권 거래실적이 동시에 늘어나는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다"며 "복합점포는 그동안 고객 예약자인 PB고객들이 누려온 금융 토탈서비스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대한중공업 제2공장에 1,200억 투자

대한조선-영암군, 내일 투자 양해각서

대주그룹(회장 허재호) 계열사인 대한조선은 15일 영암 대불공단내 대한중공업에서 영암군(군수 김일태)과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대한조선에 따르면 박재영 대한조선 부회장과 김일태 영암군수는 이날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중공업 공장 준공 및 향후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양해각서는 대한조선이 대한중공업에 투자한 1단계 사업비 600억원을 포함, 향후 1년 이내에 1천200억원을

대한중공업 제2블록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한조선은 대한중공업과 제2블록공장 근로자들의 집단 거주시설에 500억원을 투입하고, 영암군과 함께 영암군 삼호읍내에 인문계 고교 또는 사립고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영암군은 대한중공업과 제2블록공장, 집단 주거시설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대한중공업은 1만5천여명의 블록 조립공장을 포함, 5만여명의 부지를 갖추고

연간 10만t의 블록을 생산하게 된다.

대한중공업은 대주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첫 프로젝트로, 1천2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연간 6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박재영 부회장은 "대한중공업 준공으로 세계 제1의 조선소를 가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서남권 특히 영암군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그룹은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평의 조선소를 해남 화원반도 일대에 건설중이며, 오는 8월 제1도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ee@

#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 급물살

재경부·한은,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합의

증권·은행 간의 공방 속에 난항을 겪어온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안에는 모든 증권사들이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13일 재경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4~15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석동 법안 통과와 최대 걸림돌이었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합의로 사실상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증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합의안은 증권사들의 대표금융기관으로 정했던 증권금융을 배제하고 우량 증권사에만 은행 결제망 참여를 허용 하려던 당초 합의안에서 선화한 것으로, 선별 허용시 증권사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수입 미국산 쇠고기 85t 시중 유통

지난 4월말 수입이 재개된 뒤 미국산 쇠고기가 90t 가까이 시중에 풀리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 유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부 물량은 이미 대형 음식점에 공급돼 실제로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4월말 이후 현재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37건, 248t 규모다.

이 가운데 66.4t은 검역 불합격으로 반송 또는 폐기됐다. 여기에는 지난달말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돼 반송된 카일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 이태리가구 전문점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 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 1.2층 : 명품가구 ● 3~5층 : 엔틱가구 ● 지하 : 50% 세일가구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앞)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 "지역기업 파업 결국은 지역에 피해"

광주·전남 경총 자체 촉구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엄홍섭)는 13일 최근 거세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 무분별한 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를 결의, 파업수순을 밟고 있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는 삼급단체인 급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를 위한 정치투쟁을 예고하고 캐리어 광주공장 노조

는 이미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은 커녕 고율의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요구나, FTA 저지를 위한 파업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맹목적인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양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ee@

# 전북 중견건설사 '신일' 부도

광주 동림2지구 등 아파트 공사 차질 우려

전북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신일이 지방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최중부도를 맞으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건설업체에 '흑자 부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건설업체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 12일 국민은행으로 돌아온 어음 25억원 등 37억원을 막지못해 1차 부도처리관인 이날도 농협중앙회 수일인계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12억원 등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일은 지난 1985년 전북 익산에서 출범한 이후 대한주택공사 도급공사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통해 대구와 천안 등 지방 주택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지난해 매출 4천687억원

에 27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주)신일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57위로, 대구 등 6곳의 자체 사업장 외에도 전국 14곳의 주공아파트 시공을 맡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회사는 광주 북구 동림2지구 '휴먼시아'아파트를 시공중이던 지역 내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공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863세대 규모로,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입주를 2008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주공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동림2지구의 경우 모든 공사비를 시공사인 신일측에 주지 않고 각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결제해온 만큼 공기지연 등 사업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 북분자주 매출 증가 보해·재배농가 희석

보해양조의 북분자주 매출이 증가하면서 원료인 북분자 수매량도 덩달아 늘어난다. 보해양조와 북분자 재배 농가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13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양조 북분자주가 첫선을 보인 2004년 매출액이 50억원에 그쳤으나 2005년 100억원으로 배가 늘었고 작년에는 3배가 넘는 320억원을 기록했다.

또 올해는 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매출액 상승은 재배농가들의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보해가 사들인 북분자는 2005년에는 950t(60억원), 2006년에는 1천600t(90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펌피어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펌피어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난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한온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특별 할인 판매 실시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6월 13일부터

벽걸이형 에어컨 (6, 8, 10평형)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 업계 최초 펌피어 특별 리스도 기법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무이자 할부 판매(12개월)

▶ 심상,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필피어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062)955-4222, 080-701-7117

MBC 11:30 뉴스(12.19)

KBS 11:30 뉴스(12.19)

SBS 11:30 뉴스(12.19)

MBC 11:30 뉴스(12.19)